



## 14강 mini 과제. 소설의 서술자 & 시점

😊 해설지를 사랑하지 마! 해설지는 최대한 안 보는 게 좋은 거야~ 스스로 머리 터지도록 고민하고! 마지막에 확인용으로만!!

1단계. 지문을 읽고 주어진 선지가 Yes인지 No인지 체크하거나, 정답을 골라낸다.

2단계. 정답만 확인한다.

3단계. 커다랗게 채점하고, 기출은 진리! 라는 전제 하에 왜 그 설명이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 근거를 꼼꼼하게 적어 본다.

### ☆ 지문 number 2

2010학년도 EBS 수능특강

[앞부분 줄거리] 수진은 마을 앞바다에서 처음으로 침몰선을 본 뒤, 그 침몰선이 금방이라도 닻을 올리며 떠나갈 것이라 상상하며 지낸다. 그러다 마을을 떠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한 소녀를 만나고, 그 소녀에게 바다와 침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어느 여름 방학에 수진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녀에게 바다를 보여 주기 위해 마을을 찾는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마을로 돌아온 바로 그 순간부터 수진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침몰선은 물론 아직 떠나가지 않고 있었다. 마을의 정자나무도 무성하게 여름을 받아 주고 있었다. 휴가병 하나가 아직도 그 정자나무 아래서 아이들을 상대로 농지거리를 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러나 뭔가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바닷물은 그의 이야기로 소녀의 머릿속에 심어주었던 것처럼 푸르지 못했고, 침몰선은 그렇게 먼 수평선 위의 꿈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정자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도 그리 정다워 보이지 않았으며, 한낮의 골목길은 그늘도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이상한 느낌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녀에게 그는 무슨 큰 빛이라도 진 것처럼 이것저것 열심히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은 그럴수록 싱겁기만 할 뿐, 신비롭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소녀가 수진의 말에 동의를 해 주어도, 그는 그녀가 마치 못해 치렷말 대답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 지레 혼자서 미안해지곤 했다. 아닌게 아니라 소녀의 표정이 K시에서 그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보다 웬지 더 냉랭해 보인 것도 사실이었다. 수평선을 바라보는 눈이 그때처럼 안타까운, 아득한 꿈같은 것을 담지도 않았고, 밀물과 썰물을 보고도 별로 신기해하지 않았으며, 정자나무 아래 사람들의 이야기에 호기심

을 갖지도 않았다. 그리고 마치 못 올 데를 온 사람처럼 골목길도 잘 나가려지 않은 채 그의 누이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는 날이 밝자마자 도망치듯이 K시로 다시 떠나가고 말았다.

소녀를 떠나 보내고 나서 수진은 속으로 안절부절이었다.

그리고 비로소 그녀에게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자신을 깨달았다.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까지도 그 거짓말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전쟁에 관해서, 바다에 관해서, 그리고 그 침몰선에 관해서. 그는 이미 옛날에 모든 진상을 깨닫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그는 어렸을 때의 그 불가사의한 일들의 비밀의 해답을 알아낸 지가 오래였다. 바다는 그렇게 푸르거나 맑지가 않으며 침몰선은 영원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살아 없어지거나 가라앉고 말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배가 물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 횡액이 많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라는 것을. 한테도 그는 그것을 감추고 소녀에게 거짓 꿈같은 이야기들만 해 온 것이었다. 그는 아무래도 견딜 수가 없었다.

방학을 절반도 지내지 못하고 수진은 다시 K시로 갔다.

수진을 본 소녀는 전처럼 여전히 상냥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역시 기다리던 바다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수진은 더욱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간신히 용기를 내어 소녀에게 지난번 그녀의 여행과 바다에 대해서 물었다. 어떤 대답을 듣게 되더라도 묻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은 예상보다도 더욱 무참스런 것이었다.

① “수진은 바다 이야기밖에 할 줄 모르나 봐.”

소녀는 그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중략)



그는 자신이 바다에 대해서, 그 바다의 침몰선에 대해서 자신과 소녀에게 거짓말을 해 온 이유를 이제 어슴푸레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그 정자나무 아래의 마을 청년들이 아이들 앞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해 가며 어른이 되어 가는 것과도 비슷한 일이었다. 수진이 바다를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려는 허물은 소녀가 이 세상 어디에 엄청나게 경이로운 세계가 있으리라 상상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 꿈이 사실이 아닌 것은 누구의 허물이 될 수도 없었다. 그 꿈을 깨는 것 역시 누구의 허물이 될 수 없었다. 굳이 허물을 따져야 한다면 그건 양쪽에 똑같이 책임이 있었다. 누구도 허물로 생각지 않아 온 것을 소녀가 용서하지 못한 것뿐이었다. 소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결코 사라질 것 같지 않았다. 그는 마치 대단치도 못한 가문의 내력을 잔뜩 과장해 자랑하다가 뒤늦게 무안을 당하고 만 사람의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럴수록 거꾸로 바다를 다시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되살아났다.

그는 소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만큼, 침몰선의 먼 항해를 다시 꿈꾸려고 애썼다.

그는 다시 정자나무계로 나와 앉아 바다를 자주 내려다보았다. 혼자 그렇게 앉아 있을 때도 있었고, 휴가 중의 청년을 둘러싸고 앉은 아이들 속에 함께 섞여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전쟁에 관해선 꽤 많은 사실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년들의 이야기(이제 그것은 전쟁 이야기가 아니지만)엔 별로 귀를 기울이는 일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리고 앉아서 이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종(船種)\*들을 상기하면서 혼자서 곰곰 침몰선의 정체를 생각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이제 학교를 다시 가지 않게 되었으므로 더벅머리를 기르기 시작했다. 더벅머리가 이마와 귀를 덮어 내려왔을 때 그는 그 머리를 뒤로 빗어 넘겼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이제까지의 '수진' 대신 '자네'라든가 '총각' 따위로 그를 다시 고쳐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를테면 이제까지의 '수진'보다 지칭력이 훨씬 약했고, 그만큼 그는 보통 명사 무리 속으로 정연하게 섞여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것이 적잖이 서글펐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머리를 다시 깎을 수는 없었다. 수진은 이제 그런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생각들 속에 바다도 전처럼 좋아할 수가 없었다.

\*선종 : 배의 종류

- 이정준, 「침몰선」-

※ <보기>를 참고해서 지문 이해하기! 왜? 줄제자가 준 선물이니까~

<보기>

미성숙한 어린 주인공이 일련의 경험과 시련을 통해 어른들의 세계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는 소설을 성장 소설이라고 한다. 성장 소설에서 주인공은 충격적인 체험으로 인해 내면적 갈등과 정신적 성장,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각성의 과정을 거쳐 성장하게 되며, 소설 속에서 통과 의례는 미숙한 주인공이 성숙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으로 나타난다.

Q1.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과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 Yes  No
- ②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Yes  No
- ③ **작품 속 인물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요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Yes  No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적극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과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Yes  No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 의식까지 그려 내고 있다. Yes  No

Q1. 뱃골에 새기는 오답노트

1. 난 몇 번을 골라서 틀렸지? ( )번  
왜 그걸 골랐는지 반성하는 마음으로

(보기)  
.....  
.....  
.....

2. 정답은 몇 번이니? ( )번  
왜 ( )번이 정답인지 이유를 한 번 써 보자.

.....  
.....

3. 내 실수의 유형 (스스로에게 한 마디!)

.....  
.....



☆ 지문 number 3

2008학년도 대수능

연습이 끝나고 **막걸리 집**으로 옮겨 갔을 때도, 아이들은 민 노인을 에워싸고 역시 성규 할아버지의 북소리는, 우리 같은 즐거움이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명인의 경지라고 추어올렸다. 그것이 입에 발린 칭찬 일지라도, 민 노인으로서 듣기 싫지 않았다. 잊어버렸던 세월을 되일으켜 주는 말이기도 했다.

“애들아, 꺼져 가는 떠돌이 북쟁이 어지럽다. 너무 비행기 태우지 말아라.”

민 노인의 겸사에도 아이들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아닙니다. 벌써 품이 다른걸요.”

“맞아요. ㉠ 우리가 칠 때는 죽어 있던 북소리가, **팽과리보다 더 크게 들리더라니까요.**”

“성규, 이번에 참 욱보았다.”

난데없이 성규의 노력을 평가하는 녀석도 있었다. 민 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의외의 술친구들과 어울린 자신의 마음이, 의견과는 달리 꽤 편안하다는 느낌도 곱씹었다. 옛날에는 없었던 노인과 젊은이들의 이런 식 담합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는가를 딱히 짚어 볼 수는 없었으되.

두어 번의 연습에 더 참가한 뒤, 본 공연이 열린 날 새벽에 민 노인은 성규에게 일렸다.

“아무리 단역이라고는 해도, 아무 옷이나 걸치고는 못 나간다. ㉡ **모시 두루마기를 입지 않고는 북채를 잡을 수 없어.**”

“물론이지요. 할아버지 옷장에서 꺼내 놓으세요. 제가 따로 가지고 갈게요.”

“두 시부터라고 했지?” / “네.”

“이따 만나자.”

일찍 점심을 먹고, 여느 날의 걸음걸이로 집을 나선 민 노인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설레임으로 흔들렸다. 아직은 눈치를 채지 못한 아들 내외에 대한 심리적 부담보다는, 자기가 맡은 일 때문이었다. 수십 명의 아이들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춤판**에 영감쟁이 하나가 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어색하기도 하고, ㉢ **모처럼의 북 가락이 그런 모양으로밖에는 선보일 수 없다는 데 대한, 옅은 적막감도 씻어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젊은 훈김들이 뿔어내는 학교 마당에 서자 그런 머뭇거림은 가당찮은 것으로 치부되었다.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아이들 속에 섞여 원진(圓陣)을 이루고 있는 구경꾼들을 대하자, 그

런 생각들은 어디론지 녹아 내렸다. ㉣ **그 구경꾼들의 눈이 자기에게 쏠리는 것도 자신이 거쳐 온 어느 날의 한 대목으로 치면 그만이었다.** 노장이 나오고 취발이가 등장하는가 하면, 목중들이 춤을 추며 걸쭉한 음담패설 등을 쏟아 놓을 때마다, 관중들은 까르르 웃었다. 민 노인의 북은 요긴한 대목에서 등등 울렸다. 짜지는 소리를 내는 팽과리며 장구에 파묻혀 제값을 하지는 못해도, 민 노인에게는 전혀 과념할 일이 아니었다. 그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공연 전에 마신 술기운도 가세하여, 탈바가지들의 손끝과 발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북소리는 툭 툭 꽃혔다. 그새 입에서는 얼씨구! 소리도 적시에 흘러 나왔다. 아무 생각도 없었다. ㉤ **가락과 소리와, 그것을 전체적으로 휩싸는 달착지근한 장단에 자신을 내맡기고만 있었다.**

그날 밤, 민 노인은 근래에 흔치 않은 노곤함으로 깊은 잠을 잤다. 춤판이 끝나고 아이들과 어울려 조금 과음한 까닭도 있을 것이었다. 더 많이는,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 몫을 제대로 해냈다는 느긋함이, 꿈도 없는 잠을 거쳐 상큼한 아침을 맞고 했을 것으로 믿었는데, 그런 흐뭇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다 저녁 때가 되어, 외출에서 돌아온 며느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성규를 찾았고, 그가 안 보이자 민 노인의 방문을 밀쳤다.

“아버님, 어저께 성규 학교에 가셨어요?”

㉥ **예사로운 말씨와는 달리, 굳어 있는 표정 위로는 낭패의 그늘이 짙 깔려 있었다.** 금방 대답을 못하고 엉거주춤한 형세로 며느리를 올려다보는 민 노인의 면전에서, 송 여사의 한숨 섞인 물음이 또 떨어졌다.

“북을 치셨다면서요.”

“그랬다. 잘못했니?”

우선은 죄인 다루듯 하는 며느리의 힐문에 부아가 꾸역꾸역 치솟고, 소문이 빠르기도 하다는 놀라움이 그 뒤에 일었다.

“아이들 노는 데 구경 가시는 것까지는 몰라도, 개들과 같이 어울려서 북 치고 장구 치는 게 나이 자신 어른이 할 일인가요?”

“하면 어때서. 성규가 지성으로 청하길래 응한 것 뿐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니. ㉦ **이번에도 내가 녀들 체면 깎았냐.**”

“아시니 다행이네요.”

송 여사는 후닥닥 문을 닫고 나갔다.

- 최일남 「호르는 북」 -



✓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인물의 내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Yes  No

**Q2. 기출 선지, 이거슨 진.리.**

이 선지는 왜 (맞는, 틀린) 설명일까? 근거를 찾아 보자! ✍

☺

.....

.....

.....

.....

✓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Yes  No

**Q3. 기출 선지, 이거슨 진.리.**

이 선지는 왜 (맞는, 틀린) 설명일까? 근거를 찾아 보자! ✍

☺

.....

.....

.....

.....

✓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Yes  No

**Q4. 기출 선지, 이거슨 진.리.**

이 선지는 왜 (맞는, 틀린) 설명일까? 근거를 찾아 보자! ✍

☺

.....

.....

.....

.....

7.7 사랑할 수 없는 해설지~

01 ② 02 No 03 Yes 04 No

Q1 [출제의도] 시점을 파악하고 그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작품은 3인칭 소설이므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위치한다. 그런데 일반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서술자가 작품 속 인물들의 행동과 감정을 모두 알고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수진'이라는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어 그의 내면만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술에서는 '수진'이나 '그'를 '나'로 바꾸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아지게 된다.

[오답을 피하는 방법\*]

- ① 1인칭 관찰자 시점을 가리킨다.
- ⑤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리킨다.

Q2 '의식의 흐름' 기법은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Q3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 품으로, 제시된 부분은 주로 민노인의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가는 손자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편안해 하거나 공연을 앞두고 설레며, 북을 치고 나서 자기 몫을 해냈다는 느긋함을 느끼는 민노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Q4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는 대목을 찾을 수 없다.

